

한국 청소년의 성희롱실태 및 유형에 관한 조사연구*

김 영 혜¹⁾ · 이 화 자²⁾ · 정 은 순³⁾ · 김 이 순⁴⁾
문 선 화⁵⁾ · 정 인 경⁶⁾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거 학교성희롱 문제는 대학교에서 남자 교수에 의한 여대생의 성희롱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남자 교사에 의한 여학생의 성희롱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배금자, 1999).

성희롱(sexual harassment)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산업혁명 당시 영국에서 값싼 임금을 대가로 러시아의 어린 10대 여성을 데려와 의류공장에서 일을 시켰고 그 때 남성상관들로부터 성적 추행 내지 성희롱에 시달린 나머지 제일 먼저 배운 영어가 "Don't touch me!-제발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였다는 일화가 있다(김학준·강기원, 1995). 1792년 영국의 여권옹호론자 메리월스톤 크래프트가 시작한 페미니즘 운동에 이어 프랑스의 보봐르교수가 "여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Feminism 이론을 학술적으로 발전시켰고(송정희, 1998), 1964년 케네디 행정부에서는 "시민을 위한 권리법(Title 7)"을 내놓으며 흑인 및 여성의 인권을 백인 및 남성의 인권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등 여성인권에

대한 권리가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한국에서는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제8조 2항)이 제정되어 미국보다 30년이나 늦게 남녀평등시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Marilyn Yalom(윤길순 역), 1999; 배금자, 1999).

남녀고용평등법(1999)은 남녀간의 성차별 의식을 없애기 위해 우선 직장 내 성교육을 통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교내 환경에서도 성차별 현상이나 성희롱과 성폭력 요인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이나 비정부기구(NGO)인 여성단체연합에서도 미래의 직장인이 될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 정책을 알리고 교육·홍보할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한국여성단체연합회보, 1997.11.25). 무엇보다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의하면 교직원 및 기타 교육기관 종사자에 의한 교육생 및 교육용시자에게 성희롱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

* 부산대학교간호과학연구소 건강증진연구부 공동연구

1)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4) 동의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2)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5)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3)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6) 동아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시간강사

해 학생간의 성희롱금지에 관한 규정이 빠져있지만 앞으로는 추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7조 2항에 의하면, 해당 학교는 학생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성희롱에 대한 법령, 학교 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성희롱피해 학생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어쨌든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신체접촉, 언어사용, 성적 노출과 시각적인 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 등을 함축하고 있다. 성희롱은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율권을 침해한 성행동의 결과로서 파생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 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위배되므로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가정 및 지역사회(학교)내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교육을 제공해야 할 학교나 교사입장에서는 교과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시간부재 등 여러 가지 제한점 때문에 실제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성행동에 대한 기초를 학교에서 올바르게 가르쳐 줌으로써 친구나 외설서적 등을 통해 잘못된 성 지식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Wong, 1993) 학교내 성교육의 현황조사에서 보면, 형식적인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홍길유, 1989) 성교육 내용이 생리교육 및 처치 위주로 한정되어 있거나 불충분함을 지적하고 성행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하여 핫 이슈화한 성희롱에 대해서 학교 당국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실정에 있다(김옥열, 1992; 배금자, 1999에 재인용).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는 아직도 성희롱이라는 속성이 학교 환경과는 무관하며 다만 직장에서 성폭력이라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만 발생 가능하다고 믿고 있으나 학교 학생들의 성희롱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증거가 초중고등학교에서 남학생에 의한 여학생의 성희롱 문제로서 드러나고 있으며 점점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천태운, 1999).

한편, 미국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에 관한 논문들이 다수 보고되어 있으며 1993년 미국 중고등학교의 81%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으

며 주로 동료 학생들로부터 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Fineran, Bennett, 1998; Rosen, Martin, 1998; Moore, Rienjo, 1998; Roscoe, Strouse, Goodwin, 1994).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연구가 전무할 뿐 아니라 성희롱 정책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기초자료조차 부족한 실정에 있다(천태운, 1999). 그 외에도 학교 성희롱은 장차 성인기 이후의 성희롱 문화에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재학 당시에는 학교교사 및 고용자와 학생사이에서 성희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학교 성희롱 방지 및 예방법을 찾아내어 교육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김석향 역, 1994; 문영림, 박은숙, 박호란, 1999).

따라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개념을 주입하고 예방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교육이 여학생에게는 순결위주로, 남학생에게는 성행동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행동에 대한 성적 주체성을 심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남녀 학생 모두 자신이 행한 성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깨우치게 하고 서로 올바르게 대처하는 기법을 가르침으로써 성희롱, 성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나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성교육은 "인간 형성의 과정을 통해 성에 관한 생리, 심리, 사회, 행동 등 제 측면의 발달을 도모하여 풍부한 인간성과 사회성을 학습시키고 지도하는 것"이며 올바른 성 의식을 갖게 하고 성 행동을 합리적이고도 인격적이며 사회적으로 원만하게 수행하도록 돕는 행위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팀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의 실태와 유형을 파악하여 이들 경험을 가해자와 피해자별로 살펴봄으로써 한국 청소년의 성희롱 실체를 확인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대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다.
- 2) 연구 대상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성희롱의 유형적 특성을 확인한다.
- 3) 성희롱 가해 경험 및 가해 동기와 가할 당시의 느낌을 조사한다.

- 4) 성희롱 피해 경험, 상대방, 피해 당시의 느낌 및 피해 당시 해결방안을 조사한다.

II. 문헌 고찰

sexual harassment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sexual은 '성적'이라는 의미이고, harassment는 harass라는 동사형의 명사형으로 '괴롭힘', '귀찮게 굶', '성적으로 지긋지긋하게 굶'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김학준·강기원, 1995). 1975년 미국의 코넬대학의 인간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루었던 여성분과에서 처음으로 성희롱이라는 개념을 구체화 시켰고, 미국 성희롱 가이드라인에서는 성희롱을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 육체적 접촉의 요구, 기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육체적 행위로 이런 행위에 대한 수용 여부가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한 개인의 고용에 대한 조건인 경우, 개인의 수용 또는 거부 여하가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는 고용결정의 기초로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업무능력을 저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업무환경을 형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아니면 그 행위로 인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미국여성법률구조기금, 1993). 한국에서는 1980년 심영희에 의해 처음 성희롱의 개념이 해석되었다(심영희, 1998; 이원희, 1999).

성희롱은 공식적인 권력차이의 맥락에서 성적인 진술 또는 요구를 통해 도구적 관계가 성적으로 되는 것, 또한 여성이 원하지 않거나 여성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라면 공식적인 권력차이가 없어도 일어난다(공미혜, 1995). 그러나 성희롱은 권한이나 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사이에서 바라지 않는 상황에서도 일어나게 되며, 전형적으로 불쾌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진다(우영은, 1994). 이원희(1999)에 의하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부과해서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성희롱 개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1999. 3. 17)에 의하면 성희롱이 이루어진 형태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육체적 행위로서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둘째, 언어적 행위로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쌍스러운 이야기(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

유하는 행위,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셋째, 시각적 행위로는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와 직접 또는 팩스,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와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가 있으며 넷째,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는 성희롱 행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성희롱은 대부분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었으며 더욱이 IMF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중앙일보, 1998),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미국 여성의 경우, 연령이나 결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없었다고 보고되었다(Crull, 1990).

최근 여성취업률이 남성취업증가율의 5배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볼 때(문화일보, 1997), 현대의 여성들은 자신의 성장이나 사회적 성취욕구 때문에 직장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의 사고의 변화에 따른 취업증가가 성희롱 증가와 관련될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의 여성들과는 달리 현대의 여성들은 성희롱 경험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문제로 부각된 우리사회의 대학 여 조교 사건, 미국 현직 대통령의 인턴사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 등을 통하여 여성의 성희롱에 대한 사고와 그에 따른 대처행위의 변화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문화의 발달과 다양한 교육이 인식과 행위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성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여학생뿐만 아니라 대부분 가해자의 입장에 놓이게 되는 남학생에 대한 성교육이 필요하며 사회전체의 윤리적 교육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특히 학교 성희롱은 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학업이나 경력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으로, 학교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보면 대상형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상형 성희롱은 학교 고용인이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이 환영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제공해야한다고 믿게 하는 경우와 고용인이 학생으로 하여금 그 학생이 환영하지 않는 성적행위를 제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교육의사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믿게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환경형 성희롱은 환영하지 않는 성적 행위가 매우 심하고, 지속적이고, 만연

되어 있어서 학생의 학교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여 이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능력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하고, 또 환영하지 않는 성적 행위가 매우 심하고 지속적이고 또는 만연되어 있어서 위협적이고, 협박적이고, 또는 부패한 환경을 조성할 때 발생한다(천태운, 199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성희롱은 장차 성인기 이후의 성희롱 문화에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재학중이라도 학교 고용자와 학생사이에서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결방법을 찾아내어 교육,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으나(김석향 역, 1994; 문영림, 박은숙, 박호란, 1999) 구체적인 성희롱 예방법이나 교육자료는 물론 가장 기초적인 학교 내 성희롱 실태나 유형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00년 7월 1일에서 12월 31까지 부산과 경남에 위치한 남녀 중고등학생 4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질문지로서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력에 대한 15문항, 성희롱 관련 특성에 대한 25문항과 성희롱을 가했을 때의 심리적인 반응에 대한 10문항과 성희롱 피해 당시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10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값은 .9028, .9548이었다. 성희롱 유형은 노동부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지침에서 제시한 12가지의 유형을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육체적 행위 5문항, 언어적 행위 3문항, 시각적 행위 3문항의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의 반응은 "예, 아니오"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9501 이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 자료는 2000년 7월 12일에서 1주 동안 질

문지 방법에 의해 수집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부산시의 6개의 학군 중 3개 학군을 무작위 선정한 후에 6개의 중학교와 2개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추출한 후, 양호교사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본 연구팀이 직접 자료수집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한 후 SPSS WIN 8.0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청소년 관련 특성 그리고 성희롱 관련특성은 빈도분석을 이용하였고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을 가했을 때와 당했을 때의 심리적 반응과 성희롱 피해 시에도 의논을 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대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은 남자가 66.7%로서 여학생 33.3%보다 많았으며 중3 학생이 39.8%로 가장 많았으며 고3 학생이 10.6%로 가장 적었다. 학교등급분포에서는 중학생이 64.2%로서 가장 많았으며 고등인문계 23.4%, 고등실업계 12.4%의 순 이었다. 종교는 불교가 33.7%로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이후 과외경험은 없는 경우가 54.7%로 있다고 응답한 사람 45.3% 보다 더 많았다. 한달 용돈은 평균 5만원 미만이 39.4%로 가장 많았다. 본인의 학업성적에 대한 인지도에서 중간정도라고 응답한 학생이 65.9%로서 가장 많았으며 평소 통학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가 51.6%로 가장 많았다. 집안에 개인용 PC를 보유한 대상자가 80.4였으며 인터넷 접속을 하는 비율이 45.7%로 하지 않는 대상자 보다 더 많았으며 음란물 접속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53.7%였고 이성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74.9%이었다. 그밖에 음주경험이 44.2%, 흡연경험이 27.6%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2. 연구대상의 성희롱 유형

연구대상 청소년들(475명)에게 학교생활에서 경험한 성희롱 유형(11가지)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유형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과 같은 언어적 성희롱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의 35.4%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입맞춤 포옹과 같은 신체적 접촉"이 30.5%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475

특 성	구 분	실 수	퍼센트
성 별	남	317	66.7
	여	158	33.3
학 년	중1	63	13.3
	중2	57	12.0
	중3	189	39.8
	고1	59	12.4
	고2	55	11.6
학교급별	고3	52	10.9
	중	305	64.2
	고등실업	59	12.4
종교	고등인문	11	23.4
	불교	160	33.7
	기독교	71	14.9
	가톨릭교	19	4.0
과외경험	무교	114	24.0
	기타	111	23.4
	있다	215	45.3
한 달 용돈	없다	260	54.7
	만원미만	11	2.3
	3만원 미만	168	35.4
	5만원 미만	187	39.4
	7만원 미만	56	11.8
성적(자가보고)	기타	53	11.2
	10등 이내	143	30.1
	11 ~ 20등 사이	125	26.3
	21 ~ 30등 사이	120	25.3
	30 ~ 40등 사이	68	14.3
통학수단	41등 이하	19	4.0
	버스	245	51.6
	지하철	20	4.2
	자가용	28	5.9
PC 유무	기타	182	38.3
	있다	382	80.4
	없다	93	19.6
인터넷 접속	자주 한다	217	45.7
	자주 안 한다	257	54.3
인터넷 접속장소	집	205	43.1
	PC 게임방	235	49.5
	친구집	16	3.4
	기타	19	4.0
음란물 접속경험	있다	255	53.7
	없다	220	46.3
아성친구 유무	있다	119	25.1
	없다	356	74.9
음주경험	있다	210	44.2
	없다	265	55.8
흡연경험	있다	131	27.6
	없다	344	72.4

로 높았으며 그 외에 2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유형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전송”(28.2%), “상대방의 신체적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하는 말하기”(27.4%), “어깨동무 하듯 상대방의 어깨안쪽을 건

드리기”(24.4%), “필요 이상으로 손을 잡거나 신체부위를 접촉하기”(24.2%),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신체부위 접촉하기”(20.8%)였으며 반면에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은 “옆에 또는 무릎에 앉으라고 강요하기”(15.6%), “성과 관련된 특정 부위 노출”(17.3%), “외설적인 사진 등 음란물 보여주기”(19.8%) 등이었다.

<표 2> 연구대상의 성희롱 유형

N=475	
성희롱 유형	빈도(백분율)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하기	168(35.4)
입맞춤 포옹 등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145(30.5)
인터넷을 통해 음란편지 음란사진 음란그림을 보냄	134(28.2)
외모에 대한 신체적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하는 말을 함	130(27.4)
다정한 듯 어깨동무를 하거나 충고하듯이 어깨 안쪽을 건드려봄	116(24.4)
필요이상 오랫동안 손을 잡거나 특정 신체부위(가슴, 엉덩이)를 접촉	115(24.2)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엉덩이, 가슴)접촉	99(20.8)
성적인 말이 담긴 말이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함	94(19.8)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보여줌	94(19.8)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엉덩이, 가슴, 허리, 성기)를 고의적으로 노출	82(17.3)
몸을 접촉하거나 옆에 또는 무릎에 앉으라고 강요	74(15.6)

3. 성희롱 가해 비율, 가해 대상, 최초 시기, 동기 및 그 당시의 느낌

대상자에게 학교 생활 중에 성희롱을 한번이라도 가해보았던 경험이 있었으면 가해 당시 상대방은 누구였으며 최초로 가했던 시기, 동기 및 그 당시의 느낌을 질문하였고 그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성희롱 가해비율에서 전체의 18.3%가 성희롱을 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성희롱을 가했던 상대는 ‘동급생’이 4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성 친구에게 가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9.4%를 차지하였다. 또한 성희롱을 가했던 최초시기가 중학교시절이 38.4%, 초등학교시절이 37.2%로 많았고 가해 동기는 ‘심심해서 가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워서 골려주려고’가 31.3%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그 외에는 ‘이성에게 관심을 끌려고’ 25.7%, ‘좋아하기 때문에’ 가했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22.0%를 차지하였고 "친구가 부추겨서"가 20.7%, "성희롱을 당하면 좋아하는 줄 알고"가 16.3%,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가 11.4%이었다.

끝으로 성희롱을 가했을 때의 느낌을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재미있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6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즐거움을 느꼈다'가 56.3%, '또 다시 해보고 싶었다'가 50.0% 였으며 그 외에도 '스릴감을 맛보았다'(46.6%), '스트레스 해소'(41.3%), '통쾌감'(40.5%), '흥분감'(39.5%), '후회감'(37.7%), '죄책감'(29.6%), '두려움'(27.4%)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3> 성희롱 가해자의 비율, 가해대상, 최초 시기, 동기 및 느낌

		N=475	
내 용	구 분	빈도	%
성희롱 가한 경험 예 (n=475)		87	18.3
	아니오	388	81.7
성희롱 가해 상대 (n=87)	이성 친구	25	29.4
	동성 학급친구(동급생)	38	44.7
	기 타	23	26.7
성희롱을 가한 최초 시기 (n=87)	초등학교	32	37.2
	중학교	33	38.4
	고등학교	21	24.4
성희롱 가해 동기 * (n=87)	심심해서 했다	42	48.8
	좋아할 줄 알고 했다	14	16.3
	이성에게 관심을 끌려고	21	25.7
	친구가 부추겼다	18	20.7
	좋아하기 때문에 했다	19	22.0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10	11.4
	미워서 풀려주고 싶었다	28	31.3
	즐거움을 느꼈다	49	56.3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	36	41.3
	재미있었다	53	61.6
성희롱 가해 당시의 느낌* (n=87)	또 다시 해보고 싶었다	43	50.0
	흥분되었다	34	39.5
	스릴을 맛보았다	40	46.6
	통쾌했다	34	40.5
	후회했다	32	37.7
	두려움을 느꼈다	23	27.4
	죄책감을 느꼈다	25	29.6

<주> * 복수응답문항임

4. 성희롱 피해경험자의 비율, 피해상대 및 피해 당시의 느낌

연구대상 청소년 중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도중에 성희롱을 한번이라도 당해 본 경험이 있었는지, 있다면 가해자는 누구이며 피해장소는 어디였으며 그 당시에 느꼈던 기분이나 느낌을 말하고 성희롱을 당하고도 의논하지 않았던 이유와 만약 앞으로 성희롱을 당한다면 누구와 의논을 하겠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 내에 성희롱 피해자가 생겼을 때 그들을 도와줄 사회적 장치 또는 기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총 일곱 가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첫째, 성희롱 피해경험자의 비율은 전체의 24.2% (115명)이었으며 둘째, 성희롱을 가한 상대방은 '동급생'(42.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기타 모르는 사람'(28.7%), '이성친구'(13.9%) 였으며 놀랍게도 교직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7.8%를 차지하였다. 셋째, 발생장소는 전체의 69.8%가 교실 안에서 벌어졌으며 그 외에 통학버스나 지하철에서 18.1%, 학교 바깥이 12.1%를 차지하였다. 넷째 성희롱을 당할 당시에 느꼈던 기분이나 느낌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것은 '분노감'(51.3%)이었고 다음으로 자존심 손상(48.7%), 당혹감(47.8%), 거부감(47.0%), 모욕감(41.7%), 수치심(38.3%), 공포감(33.3%), 혐오감(32.2%), 불안감(28.7%), 우울감(2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희롱을 당하고도 의논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소문날까봐"가 전체의 49.6%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48.7%, "장난이기 때문에" 40.9%, "야단 들을까봐, 용기가 없어서"가 29.6%, "직접 복수하려고" 27.0%, "내 잘못으로 느껴서" 19.1%, "보복이 두려워서" 16.5% 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섯째, 만약 앞으로 성희롱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누구와 의논을 하겠는가에 대한 응답은 전체의 29.9%가 친구에게 의논을 하겠다고 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부모(23.9%), 의논하지 않겠다(21.3%), 상담기관(14.4%)이 순으로 많았으나 담임교사에게 의논하겠다는 대상자는 3.3%에 지나지 않았다. 끝으로 성희롱 피해 시에 도움을 요청할 사회기구가 있는지에 대하여 전체의 24.4%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28.8%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

<표 4> 성희롱 피해자 비율, 피해상대, 느낌, 해결방안모색, 의논하지 않은 이유

N=475

내 용	구 분	빈 도	백분율
성희롱 피해 경험 (N=475)	예	115	24.2
	아니오	360	75.8
피해 당시의 상대방 (n=115)	교직원	9	7.8
	상급생	5	4.3
	동급생	49	42.7
	하급생	3	2.6
	이성친구	16	13.9
	모르는 사람	15	13.0
	기타	18	15.7
성희롱 피해 장소 (n=115)	교실 등 교내에서	80	69.8
	학교를 벗어난 주변, 길거리에서	14	12.1
	통학버스 및 지하철에서	21	18.1
성희롱 피해 당시 느낌 * (n=115)	분노감	59	51.3
	공포감	38	33.0
	우울감	24	20.9
	불안감	33	28.7
	자존심 손상	56	48.7
	모욕감	48	41.7
	당혹감	55	47.8
	수치심	44	38.3
	혐오감	37	32.2
	거부감	54	47.0
성희롱을 당하고도 의논하지 않은 이유 * (n=115)	소문날까봐	57	49.6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56	48.7
	장난이기 때문에	47	40.9
	야단맞을 까봐	34	29.6
	용기가 없어서	34	29.6
	직접 복수하면 되니까	31	27.0
	내 잘못으로 느껴지니까	22	19.1
	보복이 무서워서	19	16.5
	의논하지 않겠음	101	21.3
	친구	142	29.9
앞으로 성희롱 피해를 가정할 때 의논할 상대(N=475)	부모	114	23.9
	형제자매	9	1.8
	담임교사	16	3.3
	상담소 등 기관	68	14.4
	경찰	4	0.8
	기타	22	4.6
성희롱 피해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가구)에 대한 인지도부(N=475)	예	222	46.8
	아니오	116	24.4
	잘 모름	137	28.8

V. 논 의

청소년의 성희롱 실태와 유형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학계에 보고된 청소년의 성희롱 실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희롱에 대한 함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웠다. 첫째, 한국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성희롱 유형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

패설”과 같은 언어적 성희롱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입맞춤 포옹”과 같은 신체적 접촉”이 30.5%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청소년들의 성희롱 유형이 거의 대부분 언어적 성희롱과 육체적 성희롱이었고 이는 전체의 65.9%를 차지하였다.

둘째, 성희롱을 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가 전체의 18.3%로 나타났으며 주로 동급생끼리 성희롱

을 가하는 경우가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을 가했던 최초시기는 중학교시절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희롱의 가해 동기는 “심심해서”가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워서 끌려주려고”, “이성에게 관심을 끌려고”,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가 부추겨서”, “성희롱을 당하면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동기도 있어 주의를 끌고 있다. 무엇보다도 성희롱을 가할 때의 느낌은 “재미있었다”가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즐거운 마음이 생겼다”, “또 다시 해보고 싶었다”, “스릴감을 맛보았다”, “스트레스 해소”, “통쾌감”, “흥분감”, “후회감”, “죄책감”, “두려움”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대학 여성 협회(AAUW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1993)가 미국의 공립학교 8학년에서 11학년까지의 1632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가해자의 동기를 조사한 결과(천태운, 1999)에서도 ‘학교생활의 한 부분으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므로’, ‘피해자가 그 행위를 좋아할 줄 알고’, ‘피해자와 데이트를 원해서’, ‘내 친구가 성희롱을 하도록 부추겨서’, ‘피해자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해서’, ‘피해자들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성희롱을 가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셋째, 성희롱 피해경험자는 전체의 24.2%이었으며 성희롱을 가한 상대방은 동급생이 42.7%로 가장 많았으며 발생장소는 “교실 안”에서가 전체의 6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학버스, 지하철 등 학교 밖에서도 발생하였다. 성희롱을 당할 당시의 느낌은 분노감이 51.3%로 가장 높았으며 자존심 손상, 당혹감, 거부감, 모욕감,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 불안감, 우울감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희롱을 가했다고 응답한 대상자(18.3%)보다 당했다고 응답한 대상자(24.2%)가 더 많았는데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비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되었다. 그리고 성희롱을 가할 때는 재미로 심심해서 행하지만 당할 때는 분노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응답자의 50% 이상에서 재미를 느끼고 다시 해보고 싶다는 응답의 결과를 볼 때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교육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피해경험자와 가해경험자를 합칠 경우, 성희롱 경험자가 전체 응답자의 42.5%에 도달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

은 학교 성희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8.15 해방과 6.25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서구문명으로부터 성 개방 풍조가 밀어닥쳤으나 성 행동 중심의 적절한 성교육이 실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문화와 가치 의식의 혼돈 및 성도덕의 문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한유정, 박인혜, 1996).

또한 성희롱의 발생장소로서는 주로 교실 안이 69.8%로 나타난 것과 통학버스와 지하철에서의 발생도 18.1%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도 비슷했으며 AAUW가 조사한 결과에서 교실, 복도, 운동장, 식당, 학교버스, 주차장, 체육관의 로커룸, 강당, 기숙사, 화장실 등 모든 활동 및 장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성희롱을 당했을 때 경험하는 느낌은 주로 분노감, 자존심 손상, 거부감, 당혹감, 모욕감, 수치심 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1985년에 미국심리학회(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서, 성희롱을 피하기 위해 과목을 등록하지 않거나(21%), 성희롱 때문에 수강을 중도에 그만둔 학생도 있다는 사실에서 학교 성희롱은 학업과 경력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으며 따라서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성희롱을 당했을 때 부모나 선생님보다 친구에게 의논하려는 학생이 보다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 AAUW보고서에서도 대상자중 62%가 친구와 의논하며, 부모나 가족과는 23%, 담임선생님과는 거의 의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천태운, 1999). 이는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의 영향이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같은 또래의 친구 집단의 영향이 커지게 되므로 청소년의 행동은 친구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게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수치들은 한국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사회에서의 언어적 횡포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실증적 자료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학교 내외에서의 상대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성교육이 국어, 사회, 도덕, 생물, 체육 및 양호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간 팀웍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성희롱 피해경험자의 7.8%가 교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상당한 충격으로 비추어질 뿐만 아니라

EEOC(천태운, 1999에 제인용)에서 규정한 대상형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의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게 하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신체적 접촉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성적 모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학생간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차이를 탐구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0년 7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부산, 경남의 중고등학생 475명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 성희롱 실태와 유형을 파악하고 성희롱을 당했을 때와 가했을 때의 심리적 반응을 파악하고자 시도한 조사연구로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가 66.7%를 차지하여 여자보다 많았고 중학생이 64.2%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대상자의 80.4%가 개인용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74.9%의 학생은 이성친구를 가지고 있었다.

2)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성희롱 유형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과 같은 언어적 성희롱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입맞춤 포옹”과 같은 신체적 접촉,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전송”, “상대방의 신체적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하는 말하기”, “어깨동무 하듯 상대방의 어깨 안쪽을 건드리기”, “필요이상 손을 잡거나 신체부위를 접촉하기”,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신체부위 접촉하기”, “옆에 또는 무릎에 앉으라고 강요하기”, “성과 관련된 특징부위 노출”, “외설사진 등 음란물 보여주기” 순서로 나타났다.

3) 성희롱을 가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18.3%로 나타났으며 동급생에게 성희롱을 가하는 경우가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을 가했던 최초시기는 중학교시절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해 동기는 “심심해서”가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워서 골려주려고”, “이성에게 관심을 끌려고”,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가 부추겨서”, “성희롱을 당하면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가했을 때의 느낌은 “재미있었다”가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즐거운 마음이 생겼다”, “또 다시 해보고 싶었다”, “스릴감을 맛보았다”, “스트레스 해소”, “통쾌감”, “흥분감”, “후회감”, “죄책감”, “두려움”의 순서로 나타났다.

4) 성희롱 피해경험자는 전체의 24.2%이었으며 성희롱을 가한 상대방은 동급생이 42.7%로 가장 많았으며 모르는 사람, 이성친구, 교직원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발생장소는 “교실 안”에서가 전체의 6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학버스, 지하철, 학교 밖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당할 당시의 느낌은 분노감이 51.3%로 가장 높았으며 자존심 손상, 당혹감, 거부감, 모욕감,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 불안감, 우울감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당하고도 의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소문날까봐”가 전체의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장난이기 때문에”, “아담 들을까봐”, “용기가 없어서”, “직접 복수하려고”, “내 잘못으로 느껴서”, “보복이 두려워서”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의논 상대는 전체의 29.9%가 친구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부모였으며 그 외에 “의논하지 않겠다”, “상담기관”, “담임교사”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하려고 한다.

1)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키기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의 프로그램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2)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될 것을 제언한다.

3) 초등, 중등 및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교사에 의한 성희롱 유형 및 실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교사-학생간의 성희롱 인식차이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공미혜 (1995).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와 영향요인 한 국여성학논집.
 김상옥, 남현철 (1992). 일부중학생의 성태도에 대한 의식행태조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5(2), 42-65.
 김학준, 강기원 (1995). 직장에서 플레이보이를 봐도

- 됩니다. 여성신문사.
- 김옥열 (1992). 국민학교 고학년 아동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제주학교보건, 창간호.
- 김석항역 (1994). 성희롱 이제 비상구 없다. 행림출판.
- 나영숙 (1994). 성희롱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 문은희 (1997). 청소년 성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천안지역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논문.
- 문영림, 박은숙, 박호란 (1999). 집단성교육이 초등학교 6학년생의 성지식 및 태도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5(1).
- 미국 여성 법률 구조기금 (1993). 미국여성법률 구조기금 백서.
- 박은숙 (1997). 청소년 성폭력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박혜순 역 (1996). 성과미디어 의식의 조작. 문예신서.
- 배금자 (1999). 인간을 위한 법정. 서울, 도서출판.
- 서울특별시교육청 (1998). 성과 행복.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손병환 (1998). 청소년 성폭력과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송정희 역 (1998). 세계사를 바꾼 여성들(The 100 Most Influential Women of All Time; A Ranking Past & Present). 에디터출판사.
- 심영희 (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사.
- 심정순 (1998). 언어희롱. 서울, 삼신각.
- 우영은 역 (1994). 이것이 성희롱이다. 여성사.
- 윤길순 (1999). 유방의 역사. 서울, 자작나무.
- 이원희 (1999). 성희롱 예방에서 대처까지. 한국·생산성본부.
- 이은주 (1999). 청소년의 성지식 요구. 아동간호학회지, 5(2).
- 이정권 (1998). 청소년 성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경기지역 여중고학생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 장휘숙 (1996). 성폭력의 실태 제3회 한국인간발달학회 심포지움- '성폭력의 사회, 심리, 법률적 조명'.
- 제주도교육청 (1996).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교육청.
- 천태운 (1999). 성희롱 정책: 이론과 실제. 서울, 선학사.
- 최인섭, 김성언 (1998).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유정, 박인혜 (1996). 성교육이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성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간호과학논집, 1(1), 23-40.
- 홍길유 (1989). 국민학교 성교육 현황과 그 개선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여성단체연합회보 (1997). 한국여성단체 연합회, 1997. 11. 25.
- 문화일보, 1997. 8. 8
- 중앙일보, 1998. 2. 17
- 한국여성 단체 연합회보 (1997). 11. 25
- Crull, A. (1990). *The Sexuality in the Organization* : The impact of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 Fineran, S., & Bennett-L. (1998). Teenage peer sexual harassment : implication for social work practice in education. *Social Work*, 43(1); 55-64.
- Moore, M. J., Rienjo, B. A. (1998). Sexual harassment policies in Florida school districts. *J. School Health*, 68(6); 237-42.
- Rosen, L. N., Martin, L. (1998). Childhood maltreatment history as a risk factor for sexual harassment among U.S. Army Soldiers. *Violence Vict. Fall*, 13(3); 269-86.
- Roscoe, B., Strouse, J. S., Goodwin, M. P. (1994). Sexual harassment: early adolescents' self-reports of experience and acceptance. *Adolescence*, 29(115); 515-23.
- Wong, D. L., Whaley & Wong's (1993). *Essentials of Pediatric Nursing*. Mosby.
- Women's Legal Defense Fund (1993). *Sexual Harassment: Legal and Policy Issues*.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and Pattern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Korean Adolescents*

Kim, Young Hae¹⁾ · Lee, Hua Za²⁾
Jung, Eun Soor³⁾ · Kim, Lee Soor⁴⁾
Moon, Sun Hwa⁵⁾ · Jung, In Kyung⁶⁾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Korean adolescents' sexual harassment conditions and patterns in schools as well as their psychological reactions when they are under sexual harassments or they committed sexual harassments. The subjects were 475 middle and high schoolers in Pusan and Gyeong Sang Nam-Do. The survey was executed from July 1 through Dec. 31, 2000.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SPSS WIN 8.0 using percentage, mea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linguistic sexual harassment such as "lewd jokes or dirty talks" was the major pattern(35.4%), The body touching such as "kiss or embracing", "internet transmission of pornography", "sexual harassing of body characteristics", touching breast", "grasping of hands or body touching", "body touching in secret place", "urging to sit in touch or on knees", "exposing of special body areas", and "showing pornography" followed in a row.

2. The eighteen point three percents of subjects had the experience to commit sexual harassment. The forty four point seven percent

of above subjects committed it against their classmates. The first time to commit sexual harassment was their middle school period (38.4%). Their motives to commit it were as under: 'killing time'(48.8%), 'annoying', 'attracting attention from the other sex', 'expressing lovely emotions', 'urging of their friends', 'misunderstanding that the other partners felt good when they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showing their strength' etc. their with committing harassments they felt as under ; 'joyful'(61.6%), 'funny', 'desirous to try again', 'thrilling', 'breaking stress', very pleasant', 'exciting', 'regretful', 'guilty', and 'feeling fear' etc.

3. Twenty four point two percents of the population exposed to sexual harassments. The sexual harassers were almost their classmates (42.7%). And then unknown people', 'boy or girl friends and school staffs' followed in a row. The places where harassments happened were "inside classroom'(69.8%), 'school bus and subway', 'outside school', etc. The feelings when experienced harassments were 'anger' (51.3%), 'hurting self-respect', 'embarrassing', 'rejection', 'insulting', 'shame', 'fear', 'dislike', 'anxiety', 'melancholy' etc. The reasons not to have consultations after sexual harassments were "worrying to be well-known"(49.6%), "believing not helpful enough", 'regarding simple mischief', 'trying to revenge directly', 'understanding their mistakes', 'worrying retaliation' etc.

Key words : Adolescents, sexual harassmen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at the dept. of Health Promotion, PNU

1) PhD, RN, Associate Professor, at the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 PNU

2) PhD, RN, Professor, at the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 PNU

3) PhD, RN, Professor, at the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 PNU

4) PhD, RN, Associate Professor, at the Dept. of Nursing, College of Natural Science, Dongeui University

5) PhD, RN, Professor, at the Dept. of Social Welfare, College of Social Science, PNU

6) MS, RN, Lecturer, at the Dept. of Biology, College of Natural Science, Dong-A University